

□ 연구 요약

<p>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미국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연구센터로 구성된 본 연구소는 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롭게 ‘메가-지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의 사물과 사람의 이동은 동양과 서양,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North)의 다중-문명(Multiple Civilizations)의 횡단과 교차라는 고유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COVID-19의 창궐 이후 탈세계화(degloabalization)와 ‘문명충돌’의 위험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소는 기존의 민족국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메가-지역이라는 관점에서 환태평양 다중-문명의 횡단·연계·비교연구를 수행하고 다중-문명의 평화적 공진화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냉전의 종식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유럽연합, NAFTA, ASEAN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와 지역통합을 수반했다. 특히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증가하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등과 같은 지역통합의 틀이 등장하면서 동북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태평양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이 출현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공급연쇄(supply chain)는 세계경제의 사활적 요소가 되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COVID-19가 야기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공급연쇄 위기의 전염, 나아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민족국가들의 쟁투가 동양과 서양, 북반구와 남반구의 갈등과 쟁투, 혐오와 적대 문화의 세계적 전염·확산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평양 각 지역·국가·도시에서 ‘문명충돌’이나 탈세계화의 분리주의적 흐름을 낳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별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인적·물적 흐름과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의 양자적·다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국가·도시의 횡단·연계·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서구문명을 특권화하는 오리엔탈리즘과 역으로 동양문명을 특권화하는 옥시덴탈리즘을 넘어서기 위해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에 상이한 지리-문화(geo-culture)와 복수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 본 연구는 통합하는 지역, 상쟁하는 국가, 환대하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메가-지역의 상이한 스케일을 분석하며, 특히 국가들 사이의 대립 속에서도 환태평양 해양도시들이 고유한 호혜와 환대의 역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COVID-19의 세계적 창궐 이후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중위험의 양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환태평양 해양도시에 축적된 해양문화에 근거해서 ‘힘과 대결의 논리’를 뛰어넘는 다중-문명(Multiple Civilizations)의 공감, 호혜, 환대, 포용의 문화와 ‘평화적 공진화(Peaceful Co-evolution)의 논리’를 탐구한다.
<p>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민족국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태평양 세계라는 세계적 관점에서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을 구성하는 상이한 지역과 다중문명 사이의 횡단·연계·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p>본 연구는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어 두 개 이상의 지역, 국가, 도시를 횡단하고 연계하는 흐름에 주목하는 새로운 연구의제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또한 도시들 사이의 횡단과 연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의 현실적 공간으로서 도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세계도시(global city)와 국제해양도시의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다중-문명의 상호연계의 구체적 양상을 규명하여 대결과 쟁투의 태평양이 아니라 상이한 문명이 공진화하는 환대와 호혜의 태평양을 모색할 지적·문화적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민족국가 단위의 대결과 쟁투를 도시 단위의 환대와 대비시킴으로써 다중-문명의 평화적 공진화에 대한 새로운 모형의 탐색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의 환태평양 인식지평을 확대시킴으로써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교차지로서 한국이 환태평양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이 ASEAN, RCEP, CPTPP 등 환태평양 메가-지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 과정뿐만 아니라 COVID-19를 전후로 하는 미·중 대결 속에서 어떤 민족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환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로 다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도시이자 태평양도시로서 부산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상이한 문화가 공진화하는 국제해양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부산의 주요 해외자매도시인 환태평양 해양관문도시라는 점에 착안해서 환태평양 해양관문도시들의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trans-Pacific city network)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적·문화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본 연구소는 환태평양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태평양 메가-지역 내 개별 지역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기관과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주요 거점 해양도시 연구기관과도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환태평양 연구의 허브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다.
<p>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환태평양이라는 메가-지역이 출현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환태평양 다중-문명(Multiple Civilizations) 사이의 대립과 쟁투, 혐오와 적대의 문화의 전염과 확산을 피할 수 있는 공감, 호혜, 환대, 포용 등 '평화적 공진화(Peaceful Co-evolution)의 논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평양을 동양과 서양, 북반구와 남반구 문화의 교차로 이해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사람과 사물, 나아가 질병의 이동성을 추적하는 횡단·연계·비교연구를 수행하며, 환태평양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역적 통합, 민족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쟁, 해양도시의 상호교류와 환대의 양상을 대비시켜 연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들의 지역(Region of Regions) 또는 초지역적 지역(Trans-Regional Region)으로 환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열려 있다. 문명의 교차로(Crossroad of Civilizations)로서 태평양 주변에는 상이한 역사를 갖는 지리-문화들(Geo-Culture)이 존재한다. ‘서구문화’를 유럽문명으로 상대화·지방화하는 동시에 동양문화를 중국문명으로 상대화·지방화하는 지리-문화 개념은 환태평양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문화들을 ‘다중-문명’(Multiple Civilization)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서양중심주의(Orientalism) 뿐만 아니라 동양중심주의(Occidentalism)도 극복하고 다중-문명의 교차라는 관점에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문화적 흐름들을 포착한다. • 나아가 본 연구는 다중 스케일의 관점에서 환태평양 메가-지역의 내부적 동학을 분석하면서 상이한 스케일에서 상이한 양상의 논리가 발견된다는 데 주목하고 이를 ‘통합하는 지역, 상쟁하는 국가, 환대하는 도시’로 정식화해서 구체적인 연구의제를 설정한다. 1) COVID-19의 세계적 창궐을 전후로 한 시기에 환태평양 지역 내에서 상쟁하는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연계와 대결의 양상 2) ASEAN, RCEP, CPTPP, USMCA, 태평양동맹 등 세계화 시대에 메가-지역의 형성과 함께 환태평양 지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의 양상 3) 태평양을 가로질러 멕시코-필리핀-중국의 교역망이 형성되었던 ‘대항해시대’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환태평양 해양도시들 사이의 사람과 사물의 흐름의 횡단·연계 양상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 특히 환태평양 주요 해양도시들 사이의 비교·횡단·연계 연구는 영토를 중심으로 문명을 이해하는 기존의 민족국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흐름을 중심으로 다중 문명의 새로운 분포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태평양을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문명의 교차로로 이해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의 주요 해양도시들을 메가-지역 내 도시들의 연결망 속에서 비교분석하고 해양도시문화의 상이한 모형을 유형화하며 해양문화에 내재된 다양성·개방성·포용성 속에서 상이한 문명의 평화적 공진화를 가능케 하는 호혜와 환대의 논리를 발견한다.
<p>키워드 (Keyword/한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지역, 환태평양, 다중문명, 문명의 평화적 공진화, 문명의 교차로, 다중 스케일, 지역의 통합, 국가의 상쟁, 도시의 환대, 호혜와 환대의 해양도시문화, 해양도시 역동성, 횡단-연계-비교연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p>키워드 (Keyword/영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ga-Region, Trans-Pacific, Pacific Rim, Multiple Civilizations, Peaceful Co-Evolution of the Civilizations, Crossroad of the Civilizations, Multiple Scale, Incorporating Regions, Contesting Nations, Embracing Cities, Marine City Dynamic Culture, Cross-Connected-Comparative Regional Studies, North East Asia, South East Asia, North America, Middle and South America, Oceania